

## 청소년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및 활용실태

이 주 인 · 김 정 현\* · 정 인 경\*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 Perception and Usage of Food & Nutrition labels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Lee, Ju In · Kim, Jung Hyun\* · Jung, In Kyu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 ABSTRACT

Even though snacks or meals purchased by teenagers have dramatically increased in Korea, it has not been investigated whether teenagers know and take notice of the nutrition label. Therefor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usefulness and utilization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amongst teenager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814 of junior-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completed by 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s. Questionnaires included question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food and nutrition labels and degree of necessity and satisfaction on food products and nutrition labels. Data was analyzed with regards to sex and school year by using a SAS package program. Significant differences of each variable were tested by using the  $\chi^2$ -test, t-test and ANOVA. Only 4.4% of participants were well informed about food and nutrition labels, while 26.0% of them did not know about it. Most of participants(78%) perceived that food and nutrition labeling system is necessary but are not satisfied with it. More of them did not check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when they purchased food. Students usually checked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to know about the nutritional value, and additives. The survey showed that more than three quarters of participants take notice of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on products whereas only 57.7% of them knew what the food and nutrition actually meant. This study showed that most teenagers did not know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didn't have right information and didn't use 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an educational program about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in the school curriculum and that will help students use the nutrition label and help them choose healthy food.

Key words: food and nutrition label, perception, usage, teenagers

접수일: 2008년 10월 14일    채택일: 2008년 11월 21일

Corresponding Author: Jung, In Kyung    Tel: 82-2-820-5380    Fax: 82-2-817-7304

e-mail: ikjung@cau.ac.kr

## I. 서론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의 공급을 위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영양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정복미·최일수 2003; 이선웅 등 2000; 고혜란 2001). 그러나 최근에는 편의위주의 식사를 선호하게 되는 등의 식생활 양상의 변화로 가공 및 즉석식품이 범람하게 되었다(고혜란 2001). 특히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나 학원 등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식 빈도와 가공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다(오유미 등 2005; 이정숙 2003; 김은숙 등 2005).

가공식품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건강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식품 성분 표시나 유통·보관상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가공식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식품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건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영양소를 포함하여 건강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영양교육의 도구가 되며, 생산자에게는 건전한 식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이정원·김동순 2003; 차연수 등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 특히 청소년들은 식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아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선호도 위주로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품선택을 위해 식품표시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김동순 2002; 이인숙 등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식품표시에 대한 인식과 활용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청소년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구매할 때 식품표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7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남녀학생 829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11일간 설문 조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오미란 2005; 김동순 2001; 정흔희 2005; 이경희·여정성 1996; 김경희 1993; 정혜열 2004; 임현슬·김향숙 1998)를 참고로 작성된 후에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었다. 총 875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어 829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814부(남 372명 여 442명)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내용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학년, 연령, 성별, 한 달 용돈, 부모의 교육정도 및 직업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지정도, 식품표시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식품표시제도의 만족도는 8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식품표시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품표시 확인 유무 및 이유, 식품표시 항목별 중요도, 식품표시 종류별 확인 정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식품표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지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3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한 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인지도(perceived knowledge)’와 ‘정확도(correct knowledge)’를 구하였다.

$$\text{※ 인지도(\%)} = \frac{\text{‘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표시한 문항 수} \times 100}{\text{전체 문항 수}}$$

$$\text{※ 정확도(\%)} = \frac{\text{정답의 수} \times 100}{\text{‘그렇다’ 혹은 ‘아니다’에 표시한 문항 수}}$$

3.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조사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품표시의 전반적인 인식 및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로, 식품 표시제도의 만족도와 식품구입 시 식품표시 항목별 중요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문항에 대해 성별, 학년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

다. 각 변인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chi-square test 와 t-test, ANOVA를 통해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이 372명, 여학생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Boys (n=372)	Girls (n=442)	Total (n=814)	
Age		13.9±0.9 <sup>1)</sup>	13.9±0.9 <sup>1)</sup>	13.9±0.9 <sup>1)</sup>	
Grade	1st grade	112(30.1)	136(30.8)	248(30.5)	
	2nd grade	114(30.7)	149(33.7)	263(32.3)	
	3rd grade	146(39.3)	157(35.5)	303(37.2)	
Education	father	junior high school ≥	24( 6.5)	19( 4.3)	43( 5.3)
		high school	166(45.2)	211(48.2)	377(46.8)
		college/university	143(39.0)	177(40.4)	320(39.8)
		graduate school ≤	34( 9.3)	31( 7.1)	65( 8.1)
	mother	junior high school ≥	24( 6.5)	26( 6.0)	50( 6.2)
		high school	218(58.9)	267(61.1)	485(60.1)
		college/university	106(28.7)	117(26.8)	223(27.6)
		graduate school ≤	22( 6.0)	27( 6.2)	49( 6.1)
Occupation	father	none/housewife	4( 1.1)	6( 1.4)	10( 1.2)
		labor/production	77(21.0)	78(17.8)	155(19.2)
		sales/service	57(15.5)	80(18.2)	137(17.0)
		office work	144(39.2)	160(36.5)	304(37.7)
		professional	25( 6.8)	23( 5.2)	48( 6.0)
		others	60(16.4)	92(21.0)	152(18.9)
		none/housewife	149(40.3)	175(40.0)	324(40.1)
	mother	labor/production	29( 7.8)	24( 5.5)	53( 6.6)
		sales/service	74(20.0)	86(19.6)	160(19.8)
		office work	59(16.0)	65(14.8)	124(15.4)
		professional	15( 4.1)	28( 6.4)	43( 5.3)
		others	44(11.9)	60(13.7)	104(12.9)
		less than 10,000	63(17.0)	75(17.1)	138(17.0)
		10,000 ~ 20,000	88(23.8)	103(23.4)	191(23.6)
20,000 ~ 30,000	82(22.2)	133(30.2)	215(26.5)		
more than 30,000	137(37.0)	129(29.3)	266(32.8)		

<sup>1)</sup>Mean±S.D

이 44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3.9세였다. 학년 별 분포는 1학년이 30.5%, 2학년이 32.3%, 3학년이 37.2%였다. 조사대상자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하가 52.2%, 고졸이상 47.8%, 어머니의 경우에는 고졸이하가 66.3%, 고졸이상이 33.7%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의 아버지 직업은 사무직이 37.7%로 가장 많았으며, 생산직·기능직이 19.2%, 판매·서비스직이 17.0% 순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9.9%로 나타나 최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한 달 용돈은 3만원 이상이 32.8%, 2만원 ~ 3만원 미만이 26.5%, 1만원 ~2만원 미만이 23.6%로 나타났다.

2.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1)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식품표시제도의 인지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매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4.4%밖에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34.3%, ‘들어본 적은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5.3%로 나타나 본 조사 대상자 학생들은 식품표시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

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26.0%나 되어 식품표시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강자와 이윤희(2004)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성인에 비해 중학생들의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식품표시제도의 인지정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학년이 1학년·2학년보다 식품표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고, ‘전혀 모른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적어 3학년 학생들이 1학년·2학년 학생들에 비해 식품표시 제도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것은 ‘식품표시’ 관련 내용이 기술·가정 교과과정 중에 3학년 식생활 영역에 다소 포함되어 있어 3학년 학생들이 1, 2학년 학생들보다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공 식품에 식품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45.9%는 ‘매우 필요하다’, 32.1%는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Table 2. Perception and necessity on the food & nutrition labeling system

	Sex		Grade			Total (n=813)	
	boys	girls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n=372)	(n=441)	(n=247)	(n=263)	(n=303)		
Perception	know very well	16 ( 4.3)	20 ( 4.5)	10 ( 4.1)	8 ( 3.1)	18 ( 5.9)	36 ( 4.4)
	know somewhat	127 (34.1)	152 (34.5)	83 (33.6)	75 (28.5)	121 (39.9)	279 (34.3)
	have heard about it	119 (32.0)	168 (38.1)	79 (32.0)	98 (37.3)	110 (36.3)	287 (35.3)
	never heard about it	110 (29.6)	101 (22.9)	75 (30.4)	82 (31.2)	54 (17.8)	211 (26.0)
	$\chi^2=5.619$		$\chi^2=21.669^{**}$				
Necessity	very necessary	165 (44.6)	207 (46.9)	124 (50.2)	103 (39.2)	145 (48.2)	372 (45.9)
	necessary	111 (30.0)	149 (33.8)	68 (27.5)	93 (35.4)	99 (32.9)	260 (32.1)
	somewhat necessary	78 (21.1)	76 (17.2)	48 (19.4)	59 (22.4)	47 (15.6)	154 (19.0)
	not much necessary	7 ( 1.9)	1 ( 0.2)	2 ( 0.8)	4 ( 1.5)	2 ( 0.7)	8 ( 1.0)
	unnecessary	9 ( 2.4)	8 ( 1.8)	5 ( 2.0)	4 ( 1.5)	8 ( 2.7)	17 ( 2.1)
	$\chi^2=8.732$		$\chi^2=11.981$				

\*\*p<.01

응답한 학생은 각각 1.0%, 2.1%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식품표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성별, 학년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현행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만족정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전체 학생들의 만족도 총점은 40점 중 23.6점으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항목별로 보면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식품 표시를 쉽게 찾을 수 있다’가 3.2점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의 부착 위치나 글자의 크기에 있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품표시에 기재된 사항을 믿을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2.8점으로 가장 낮아 청소년들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기재되어 있는 표시내용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식품표시 만족도 조사에서도 ‘알고 싶은 사항이 잘

표기되어 있어 만족한다’, ‘식품표시로 제품의 특성이 파악된다’, ‘기재사항을 믿는다’라는 항목에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임현슬·김향숙 1998).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시된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도록 현행 식품표시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제도 만족정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식품 표시 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학년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식품 표시 표는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식품 표시 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문항의 경우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식품 표시 표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항목은 3학년에서, ‘식품표시제도가 식품의 안전성과 질을 향상시킨

Table 3. Degree of satisfaction of the food and nutrition labeling system

Items	Sex		Grade			Total (n=812)
	boys (n=371)	girls (n=441)	1st (n=246)	2nd (n=263)	3rd (n=303)	
1 I can easily find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on the package	3.3±1.1 <sup>1)</sup>	3.1±1.0	3.2±1.1 <sup>ab2)</sup>	3.1±1.0 <sup>b</sup>	3.3±1.1 <sup>a</sup>	3.2±1.1
2 Food and nutrition label contains useful information	3.1±1.0 <sup>*</sup>	2.9±0.9	3.1±1.0 <sup>a</sup>	2.8±0.9 <sup>b</sup>	3.0±1.0 <sup>a</sup>	3.0±1.0
3 I can understand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3.0±1.0 <sup>***</sup>	2.8±1.0	2.9±1.0 <sup>a</sup>	2.7±1.0 <sup>b</sup>	3.0±1.1 <sup>a</sup>	2.9±1.0
4 I trust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2.9±1.1 <sup>***</sup>	2.7±1.0	2.9±1.1	2.7±1.0	2.7±1.1	2.8±1.0
5 I can compare products easily by using food and nutrition label	3.0±1.1 <sup>*</sup>	2.9±1.0	3.0±1.0	2.9±1.0	2.9±1.1	2.9±1.1
6 It is helpful to store and manage the food products by using food and nutrition label	3.0±1.0 <sup>**</sup>	2.8±1.0	3.0±1.0	2.9±1.0	2.9±1.0	2.9±1.0
7 It is helpful to choose right products	3.1±1.1 <sup>**</sup>	2.9±1.1	3.1±1.0	2.9±1.0	3.0±1.1	3.0±1.1
8 It could improve the safety and quality of the food products	3.1±1.1 <sup>**</sup>	2.8±1.1	3.1±1.1 <sup>a</sup>	2.9±1.1 <sup>b</sup>	2.9±1.1 <sup>ab</sup>	3.0±1.1
Total (40)	24.5±6.6 <sup>***</sup>	22.9±6.2	24.2±6.3 <sup>a</sup>	22.9±6.0 <sup>b</sup>	23.8±6.8 <sup>ab</sup>	23.6±6.4

\*p<.05, \*\*p<.01 \*\*\*p<.001

<sup>1)</sup>Mean±S.D

<sup>2)</sup>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다'라는 항목은 1학년에서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식품표시 이용실태

1) 식품표시 확인 정도 및 이유

가공식품 구입시 부착된 식품표시의 확인 정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4), 본 조사 대상자의 59.9% 학생들이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으며, 40.1%의 학생만이 '대체로 확인한다'나 '반드시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식품표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정흔희 (2005)의 연구에서도 60.4%의 고등학생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는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식품표시 확인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조사자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식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김향숙 등 1999; 장순옥 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에 부착된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앞의 결

Table 4. Utilization of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Items	N(%)						
	Sex		Grade			Total (n=811)	
	boys (n=372)	girls (n=439)	1st (n=246)	2nd (n=263)	3rd (n=303)		
Degree of checking	always	26( 7.0)	39( 8.9)	21( 8.5)	11( 4.2)	33(10.9)	65( 8.0)
	sometimes	126(33.9)	134(30.5)	91(37.0)	77(29.3)	92(30.5)	260(32.1)
	not much	157(42.2)	191(43.5)	86(35.0)	129(49.1)	133(44.0)	348(42.9)
	never	63(16.9)	75(17.1)	48(19.5)	46(17.5)	44(14.6)	138(17.0)
		$\chi^2=1.688$		$\chi^2=18.862^{**}$			
Reason to check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to check unhealthful additives	50(33.1)	41(24.1)	32(29.1)	26(29.9)	33(26.6)	91(28.4)
	to check nutritional value	48(31.8)	63(37.1)	39(35.5)	24(27.6)	48(38.7)	111(34.6)
	to check price and weight of products	27(17.9)	41(24.1)	23(20.9)	22(25.3)	23(18.6)	68(21.2)
	to purchase the right products	14( 9.3)	5( 2.9)	6( 5.5)	7( 8.1)	6( 4.8)	19( 5.9)
	to know how to use products	4( 2.7)	5( 2.9)	5( 4.6)	2( 2.3)	2( 1.6)	9( 2.8)
	others	8( 5.3)	15( 8.8)	5( 4.6)	6( 6.9)	12( 9.7)	23( 7.2)
			$\chi^2=11.219^*$		$\chi^2=8.195$		
Reason not to check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I am not interested in food and nutrition label	99(45.2)	116(43.8)	61(45.5)	85(48.6)	69(39.4)	215(44.4)
	it is too small to read.	46(21.0)	54(20.4)	22(16.4)	31(17.7)	47(26.9)	100(20.7)
	it is hard to understand.	31(14.2)	46(17.4)	21(15.7)	28(16.0)	28(16.0)	77(15.9)
	there was no food and nutrition label	11( 5.0)	7( 2.6)	5( 3.7)	9( 5.1)	4( 2.3)	18( 3.7)
	I can't trust it	3( 1.4)	7( 2.6)	6( 4.5)	2( 1.1)	2( 1.1)	10( 2.1)
	I am not used to check it	18( 8.2)	28(10.6)	13( 9.7)	13( 7.4)	20(11.4)	46( 9.5)
	others	11( 5.0)	7( 2.6)	6( 4.5)	7( 4.0)	5( 2.9)	18( 3.7)
		$\chi^2=6.142$		$\chi^2=16.070$			

\*p<.05, \*\*p<.01

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즉 식품표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실생활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식품 구매시 식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식품표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시키고, 이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표시 확인 정도에 대해서 학년별로 비교해보면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식품 구매시 '반드시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적었다( $p < .01$ ). 이는 3학년 학생들이 1학년·2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식품표시를 실생활에 더욱 많이 활용한다는 의미로 앞에서 3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 식품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3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28.4%)', '가격, 중량 등을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21.2%)',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5.9%)', '제품의 사용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등학교 여교사를 대상으로 한 임현슬(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안전성 여부와 첨가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하였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동순(2001)의 연구에서는 주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확인한다는 경우가 가장 많아,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식품을 구매할 때 그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의 종류나 양을 확인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라 식품표시 확인 이유를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은 '몸에 해로운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확인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은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식품표시를 확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 ( $p < .05$ ). 이것은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체중 조절과 관련된 열량이나 지방 등의 영양소 함량을 확인하는 경향이 더욱 많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44.4%)'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식품표시가 너무 작거나 조잡해서(20.7%)', '식품표시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15.9%)', '습관적으로 구매하므로(9.5%)', '식품표시가 없기 때문에(3.7%)', '표시된 사항을 믿지 않아서(2.1%)'의 순이었다.

이를 통해 본 조사대상자들은 식품표시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식품표시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식품표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경희와 여정성(1996)의 연구나 중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김동순(2001)의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는 올바른 소비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구매할 때에 식품표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식품표시를 항상 확인하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식품 구입시 식품표시 항목별 중요도

식품 구입시 식품표시 항목별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제시한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되는 10가지 항목 중 조사대상자가 식품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유통기한'이었고, 그 다음으로 '제조연월일', '내용량'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식품표시나 영양표시와 관련하여 조사한 다른 연구 내용과 유사한 결과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시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여정성 1996; 이강자·이윤희 2004; 김향숙 등 1999).

Table 5. Importance of items in food and nutrition label

Items	Sex		Grade			Total (n=814)	Rank
	boys (n=372)	girls (n=442)	1st (n=246)	2nd (n=263)	3rd (n=303)		
Name of product	3.4±1.1 <sup>1)</sup>	3.5±1.0	3.4±1.1	3.4±1.0	3.5±1.1	3.4±1.1	8
Type of product	3.6±1.0	3.6±1.0	3.7±1.0	3.5±0.9	3.6±1.0	3.6±1.0	6
Name and place of company	3.4±1.2*	3.5±1.1	3.5±1.2	3.4±1.1	3.5±1.1	3.5±1.1	7
Made-by dates	4.2±1.1	4.3±1.0	4.3±1.0	4.2±1.0	4.2±1.1	4.3±1.0	2
Sell-by dates	4.6±0.9*	4.7±0.7	4.7±0.8	4.6±0.8	4.6±0.9	4.6±0.8	1
Weight of products	3.9±1.0	4.0±1.0	3.9±1.0	3.9±0.9	4.0±1.0	3.9±1.0	3
Name and weight of ingredients	3.7±1.1	3.7±1.1	3.8±1.1 <sup>a2)</sup>	3.5±1.1 <sup>b</sup>	3.8±1.1 <sup>a</sup>	3.7±1.1	5
Name and weight of additives	3.7±1.1	3.7±1.1	3.7±1.1 <sup>ab</sup>	3.6±1.1 <sup>b</sup>	3.8±1.1 <sup>a</sup>	3.7±1.1	5
Nutritional value	3.8±1.1	3.9±1.0	3.9±1.1 <sup>a</sup>	3.7±1.1 <sup>b</sup>	3.9±1.1 <sup>ab</sup>	3.8±1.1	4
Others	3.0±1.2	3.0±1.1	2.9±1.2	3.0±1.1	3.1±1.1	3.0±1.1	9

\*p<.05

<sup>1)</sup>Mean±S.D

<sup>2)</sup>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성별에 따른 식품표시 항목별 중요도를 비교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식품 구매시 ‘업소명 및 소재지(제조사·소재지)’와 ‘유통기한’의 항목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별로 식품표시 항목별 중요도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에 비해서 ‘원재료명 및 함량’이나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표시’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자의 경우, 식품 구입시 식품표시 항목 중 주로 유통기한, 제조연월일 등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다음으로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식품표시관련 지식정도

중학생들의 식품표시 관련 항목에 대한 인지도와 정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인지도는 77.7%로 나타났으나, 정확도는 57.7%로 매우 낮았다. 이는 식품표시에 대하여 대중매체나 인터넷등을 통해 접하므로써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정규수업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식품표시 인지도와 정확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학년이 1학년·2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인지도와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Table 6. Knowledge of the food and nutrition label

	Sex		Grade			Total (n=807)
	boys (n=369)	girls (n=438)	1st (n=246)	2nd (n=263)	3rd (n=303)	
Perception(%)	76.9±28.2 <sup>1)</sup>	78.3±26.1	75.4±28.0 <sup>b2)</sup>	76.2±27.0 <sup>ab</sup>	80.7±26.1 <sup>a</sup>	77.7±27.1
Accuracy(%)	56.6±24.3	58.6±22.6	53.8±23.5 <sup>b</sup>	57.6±23.0 <sup>ab</sup>	60.9±23.2 <sup>a</sup>	57.7±23.4

<sup>1)</sup>Mean±S.D

<sup>2)</sup>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3학년 학생들이 1학년·2학년 학생들에 비해 기술·가정 등 관련 교과목에서 식품표시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식품표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 및 그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직접 식품표시를 실생활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식품표시 기준에 대한 인식과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정규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식품표시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조사대상자 중학생들은 식품표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4%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학생은 26.0%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식품표시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1·2학년 학생들이 식품표시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식품표시제도는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표시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을 구매할 때 식품표시의 확인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의' 또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반드시' 또는 '대체로' 확인한다고 응답한 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대상자 학생들은 식품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고 식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식품표시는 식품 구매 시 그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종류나 양, 그리고 유해물 등의 첨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주된 이

유로는 식품표시에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3. 본 조사대상자 학생들의 식품표시 관련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77.7%인 반면 정확도는 57.7%로 나타나 식품표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식품표시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식품 구매시 식품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 교과과정 중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던 3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에 비해 식품표시제도에 대해서 더 잘 인지하고 있었고 식품 구매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식품표시관련 지식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식품표시 관련 교육이 식품표시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어 학생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올바른 식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학교교육과정에서 식품표시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술·가정 교과에 수록되어 있는 식품표시 관련 교육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보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식품표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이론 수업방식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다양한 교육매체를 개발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여겨진다.

#### 참고문헌

고혜란(2001) 식생활단원 교육이 중학생의 영양지식·식태도·식습관 및 TV식품 광고의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3) 현행 식품의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순(2001)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의 인지도와 이용실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은숙·고무식·정난화(2005) 중학생의 식생활 단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

- 교육학회지 17(3), 53-70.
- 김향숙·백수진·이경애(1999)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이용 실태.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8(4), 948-953.
- 보건복지부(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2005) - 영양조사 (I)- (2006.7).
- 오미란(2005) 중학생의 식품선택 및 식품구매 실태. 한국교육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유미·김미현·승정자(2005) 학교급식이 남녀 중학생의 영양 지식과 태도,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0(2), 163-173.
- 이강자·이윤희(2004) 식품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4(1), 54-63.
- 이경희·여정성(1996)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행동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35-248.
- 이선웅·승정자·김애정·김미현(2000) 서울과 경기 지역 남녀 중학생의 영양 지식에 따른 영양태도, 식행동 및 영양섭취 상태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5(3), 419-431.
- 이인숙·최봉순·유두련·박영미(2002) 대학생들의 식품영양표시 관련 식행동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7(3), 299-308.
- 이정숙(2003) 청소년의 성별, 비만도,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가 식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5), 652-657.
- 이정원·김동순(2001) 중학생과 학부모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식품표시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9(3), 185-196.
- 임현슬·김향숙(1998) 중등학교 여교사의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이용실태 및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7(4), 765-774.
- 임현슬(1997) 가공식품의 식품표시 이용실태 및 영양표시에 대한 인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순옥(2006) 가공식품의 나트륨함량과 일부 여대생의 나트륨 영양표시 이용 및 저염 라면에 대한 수용도. 한국영양학회지 39(6), 585-591.
- 정복미·최일수(2003) 전남 여수지역 청소년들의 비만도와 식생활습관에 관한 연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8(2), 129-137.
- 정혜열(2004) 인천지역 학교급식 영양사의 가공식품 이용 및 영양표시 인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훈희(2005) 고등학생의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와 이용실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연수·양향숙·안은미·노정옥(2005) 전주와 대구 지역 시판 가공식품의 영양 표시 실태 조사. 동아시아 식생활학회지 15(4), 482-492.